



베두인(左)과 「떨기나무」의 저자 김승학 박사

시내산 암각화에 모세의 홍해기적과 올드네게브 문자해독

▲ 누웨이바 알 무자이나(Nuwayba al Muzayyinah; 모세가 물을 가르 곳)에서 바닷길이 열리고 미디안 땅으로 행진하는 모습 출처: 유튜브 Shabbat Night Live #2, Red Sea Crossing, Kevin Fisher, Mt. Sinai



[해석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밤낮으로 행진하여 와디와피르(Wadi Watir) 도로를 통과하자 막다른 길에 이른 곳이 곧 누웨이바(Nuweiba)이다.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3절)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바다를 내려치자 홍해가 갈라져 바닷길이 생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통과하여 미디안 땅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자마자 좌우로 벽을 치고 있던 바닷물이 합쳐지고 열마되지 않아 바다 건너 서편 누웨이바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떴다고 암각화에 표현함



הן them 그들
 ון Any one person 어느 한 사람
 זולת apart 따로 떨어져

[해석②] 오른쪽의 올드네게브 문자 중에 가운데 있는 문자는 '자인'과 '바브'의 두 글자 즉 합자어(合字語)로 되어 있다. 위의 합자어는 주요 인물을 지칭하며 곧 <투트모세 3세, ון Any one person>를 뜻한다. 모두 여섯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석하면,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난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에 애굽의 기마병들과 전차를 모는 병정들만 들어가고 추격 명령을 내린 바로왕 투트모세 3세는 누웨이바 해변가에 서서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왕이 되는 투트모세 3세가 누웨이바 해변에서 홍해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부대를 지켜보다가, 난데없이 양쪽으로 벽으로 이루고 있던 바닷물이 합쳐지더니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어 의사당하는 장면을 암각화에 표현했다. (※ 위의 사진에서 스캐립(Scarab) 아래에 왕관을 쓴 머리를 땅에 처박고 누워 있는 모습이 투트모세 3세의 익사 장면. 다리를 세 개로 묘사한 것은 '남성'이라는 의미와 '3세'라는 의미를 전달할 의도로 보임)

태양신 라(Ra)를 상징하는 쇠똥구리(Scarab)가 누운 바로왕에게 똥을 배설하는 장면은 이집트인의 신화적인 입장에서 부활을 의미한다.



[해석③] הָוֹר הָוֹר hover; 맴돌다, 머물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영기니다(출15:8),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출14:29)



[해석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와 권능(느라메드)으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 완료(느타브)를 기념함

| | | | | |
|---|-------|---------------------|----------------------|---------------------------------|
| 4 | Signs | Old Negev of Israel | Sign Rotation & Size | Old Negev of American SW & Size |
| | ו | ו | ו | ו |
| | ו | ו | ו | ו |
| | ו | ו | ו | ו |
| | ו | ו | ו | ו |

[해석④] 느라메드; 소물이 지팡이를 뜻하며 여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 또는 권능을 의미한다. ון 단; 히브리어로 '단'은 심판자를 뜻한다.

ון To Dan; 단(단지파)을 위하여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를 구원하는 데 있었으며, 궁극적인 목적이 단 자손 가운데 심판자(ון) 구세주 출현을 예언한 야곱 하나님의 말씀(창 49:16)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시내산 암각화에 새겨 놓았다.



ילכת Will walk 걸을 것이다

[해석⑤] ילכת shall go through; 통과 할 것이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ילכת). (출14:16)

⑥ [해석⑥] 전차를 몰던 애굽의 군대장(軍大將)이 물 속에 잠기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출15:4)

⑦ [해석⑦] 애굽 병정을 태웠던 말들이 달아나는 장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 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출14:26)



[해석⑨] מֹשֶׁה Moshe; 모세
 모세의 이름이 올드네게브 문자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합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짐승 가운데 단봉낙타와 나귀가 앞서서 갔다.



[해석⑩] הַבִּים play, dancing; 춤추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출15:20)



[해석⑪, ⑫] מִן towering; 높이 솟은 / עָלָה rise; 올라가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길을 통과하여 미디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높은 언덕으로 피신하였다.



[해석⑬] 투트모세3세의 이름이 새겨진 스캐립 인장(Scarab seal)의 문양과 시내산 암각화에 새겨진 문양이 일치한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김해제단 : (055)327-2072 | 사천제단 : (055)855-427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大阪祭壇 : (06)6451-3914 |
| 수원제단 : (031)236-8465 | 대구제단 : (010)6530-7909 | 포항제단 : (054)291-686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
| 안성제단 : (031)673-463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순천제단 : (061)744-8007 | 강릉제단 : 033-535-8254 | |
| 평택제단 : 010-7516-159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정읍제단 : (063)533-7125 | 橫濱祭壇 : (045)489-9343 | London : (0208)894-1075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해제단 : (055)544-7464 | 군산제단 : (063)461-3491 | 神戸祭壇 : (078)862-9522 | Sydney : (006)0415-727-001 |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영천제단 : (054)333-7121 | 대전제단 : (042)522-1560 | 下關祭壇 : (0832)32-1988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